

용산구 신산업정책 포럼 '용산 코어밸리, 미래산업의 거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구는 오는 11월 19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폍크 아주르홀에서 '용산 코어밸리, 미래산업의 거점'을 주제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용산 코어밸리’는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혁신지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국제업무지구의 브랜드 슬로건 '서울 코어(Core)'와 전자상가의 혁신지대 '밸리(Valley)'를 결합해, AI·ICT 기반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용산의 비전을 담았다.

이번 포럼은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AI·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AI·ICT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 취·창업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용산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된다.

행사는 박희영 구청장의 기조연설과 '용산 미래비전 선포식'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구자훈 한양대 교수의 '새로운

도약! 용산전자상가' ▲정영범 퓨리오사AI 상무의 '변화와 도전, AI기업의 성장스토리' ▲임유진 숙명여대 교수의 'AI시대가 직면한 용산의 과제'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 토크쇼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에는 남상도 미소정보기술 대표,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위원, 임지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오동석 LG유플러스 선임, 문장원 라움그룹 대표가 참여하며, 구자훈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양천구, 서울시 최초로 초등학교까지 ‘밤샘 긴급돌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교 자녀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계기로 추진됐다. 구는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밤샘 돌봄서비스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아동이 홀로 남겨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자가 초등 자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

시간 공공 돌봄 환경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7일 관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2월 까지 초등학교 밤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월부터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목동권역 키움2호(목2동) ▲신정권역 키움6호(신정1동) ▲신원권역 키움7호(신정3동) 등 3개소를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로 지정하고,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당 및 신청은 관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에서 모두 가능해 가까운 곳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 진료·가족 간병·경조사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당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양천구 거주 초등학교생(6~12세)과 해당 아동의 미취학 형제자매(5~6세)까지 포함해 보호자가 키움센터 및 어린이집에 아이를 따로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동대문구,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지원사업 4년 성과 ‘4,935명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돕는 '2025년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935명에게 약 8억 원을 지원한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동대문구가 추진한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다.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각종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해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자격,

어학시험 등 다양한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응시료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동대문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격취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는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1,064명을 지원했으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돼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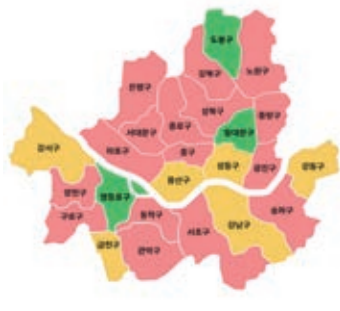
동대문구는 내년에도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시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올해 선정자는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자격취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4년간 이어진 청년 자격취득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중팔구 취업성공'청년취업사관학교… 2.0 AI 인재양성 허브

‘심중팔구 프로젝트’ 본격 가동, 취업률 80~90%가 목표…2030년 연간 1만명 인재 배출

글로벌 AI선도 기업 참여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 3개에서 10개로 확대… 엔비디아 등 참여



대형	3개소	2,000㎡ 초대강의실 8~12개
	(평균 2,237㎡)	연 200~300명 교육
중형	6개소	1,000㎡~2,000㎡강의실 4~8개
	(평균 1,282㎡)	연 150~250명 교육
소형	16개소	1,000㎡ 미만강의실 2~3개
	(평균 494㎡)	연 100~150명 교육

(단위 : 개소, 평)

서울 모든 자치구에 1캠퍼스씩 총 25개 캠퍼스 조성을 마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AI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룰 'AI인재 양성 허브'로 새롭게 도약한다.

미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단계별 AI 직무교육은 물론 기업·공공 맞춤형 인턴ships을 통해 실무적인 일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탄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0-1089(심중팔구) 프로젝트'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실무 경험을 갖춘 현장형 AI 인재를 양성해 양질의 일자리에 80~90% 취업시키는 것이다. 교육 인원은 올해 3300명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AI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경쟁력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특화 산업 거점 캠퍼스'를 운영한다.

마포와 중구, 종로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가 내년 5개, 2030년 총 10개까지 늘어난다. 엔비디아, 오라클 등 인공지능 기업이 중급 이상 심화 교육 과정을 전담 운영한다. SK, KT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형 현장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신성장 혁신 축을 중심으로 한 특화 산업 거점 캠퍼스 5곳이 신규로 운영된다. 지역별 거점 산업과 교육 과정을 연계해 지역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AI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연 연계 고급 인재 양성 트랙'을 신설한다. 매년 20명을 선발해 연구, 학위 등 과정까지 지원한다.

강사 자격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기업·공공 맞춤형 인턴ships 등 취업·창업 지원을 확대 운영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한다.

인공지능 관련 협회 회원사 인력 수요를 조사해 서울시 매력 일자리와 연

계한 '기업 연계 인턴ship'을 실시하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에 AI 분야를 추가한다.

'시정 연계 인턴ship'에 교통, 인구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공공 분야 AI 인재 수요를 반영한다. 서울시 매력 일자리 직무 분야(공공영)에 AI 활용 분야를 신설한다.

청년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 자격증을 비롯해 구직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실천 모의고사 기회와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기업, 대학, 협회·단체 간 협업 체인 '서울 AI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고 2030년까지 250개까지 참여 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AI 교육 등 재능 기부부를 통한 사회 활동과 취약 계층 교육생 장학금 후원 등에 쓰일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년간 청년취업사관학교는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완성하며, 서울 청년들에게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며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 2.0-심중팔구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이 곧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의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약자와 동행하는 안전한 겨울나기…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25.11.15.~26.3.15. 4개월간, 한파·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 대책 추진

서울시는 오는 15일(토)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생활 4개 분야에 대한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①약자와 동행하는 '한파 대책' ②신속하고 촘촘한 '제설대책' ③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④폐쇄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의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분야상황 대책반도 운영해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를 위해 종합지원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복구 체계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선 평상시(51명) 2배 이상(최대 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 거리상당과 순찰 횡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잠자리·방한용품도 지원한다.

둘째, 강설·폭설에도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

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평시에는 상황총괄반을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하고, 강설시에는 교통·시설복구·구조구급 등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

'제설 사각지대 Zero', 안전한 차도·보행로 조성을 위해 도로열선(791개소), 염수분사장치(382개소), 결빙주의 안내판(221개), 노면 흡파기(128개) 등 안전시설 설치를 늘린다.

도로결빙 감지 AIS시스템도 시범도입(3개소*)해 제설 취약구간 관리도 강화한다. *노원구 월계2지하차도 진출입부, 광진구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성북구 북부간선도로 하월곡JC(舊종암JC)

급작스러운 폭설시에도 빠르게 대응하도록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에 제설차량 1,096대, 제설용 장비 1,706대, 제설제 8만여 톤을 확보한다.

셋째,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데이터센터(47개소), ESS시설(109개소), 전통시장(346개소), 물류창고(482개소), 공유숙박 및 캠핑장(2,126개소) 및 5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32개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과 소방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빈틈없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정보 등 주요 사항을 상시 현행화하고, 캠핑장·도시민박·한옥 체류지 등 공유숙박 시설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 추진한다. 12월~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저공해 미조차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사업장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N서울타워의 조명색을 다르게 표출, '좋음'일 때 N타워 입장료 할인(전망대 입장료 20% 할인)해준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농수산물 가격표 시제 실태점검 등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배추, 무, 명대 등 겨울철 주요 품목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장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서울대, 'AI 혁신 인재 양성' 업무협약

서울시교육청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AI·데이터 연구 역량의 결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11월 12일(수) 오전 8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 학생과 교원이 함께 성장하는 AI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기조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인재 양성 정책과 서울대의 AI·데이터 연구 역량을 결합하여 교육·연구·연수 전반

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연계하여 AI를 활용한 실제적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 개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AI 학생 심화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 △교원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공동 연구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은 서울교육이 AI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이루는 공교육 기반 AI 혁신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